

사회 >> 3면

서울 쓰레기가 충청·강원까지... '쓰레기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기획 >> 6면

어서 와, 중앙동아리는 처음이지?

현장르포 >> 7면

'헌혈'과 '두쫘꾸', 이들은 어떻게 뭉쳤나

제597호

2026년 3월 11일(수)

오늘부터 1일, 우리의 캠퍼스 라이프 시작

2026 서경대학교 신입생 문화제 현장으로 GoGo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문화제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신입생 1,598명을 비롯해 학과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1부 입학식과 2부 총학생회 OT, 재학생 및 초청 아티스트 공연, 예술대와 융합대 단대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27일에는 미래융합대학 단대마당이 펼쳐졌다.

입학식은 12시부터 학생처 김광민 계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김범준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철민 연구산학부총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후 보직 교수 및 학과장 소개가 진행됐으며, 수석 입학자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과 교가 제창을 끝으로 입학식이 마무리됐다.

14시 30분경부터는 Co:Re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구진모, 부학생회장 김태휘 학우의 진행으로 신입생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가 이어졌다. 본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소개, 총학생회비 납부 방법을 비롯한 교내 주요시설과 통학 안내 등의 소개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휴식 시간 이후에는 서경대학교 홍보단 온빛이 무대에 올라 학교 홍보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학군단(ROTO)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차례로 기관 소개를 진행했다.

더불어 중앙 밴드 동아리 'Workers'와 실용음악팀 'Interim'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재학생 공연이 마무리된 뒤에는 총학생회가 준비한 럭키드로우 이벤트가 진행돼 신입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래퍼 '로꼬'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로꼬가 무대에 등장하자 수인관은 신입생들의 환호로 가득 찼다. 그는 신입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로꼬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예술대와 융합대의 단대마당이 계속됐



▲ 출처 : 서경대신문

다. 단과대 소개 및 학생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진행됐다. 더불어, 퀴즈와 장기자랑 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고 점수를 획득한 조에는 상품이 수여되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1일 차 행사가 마무리됐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미래융합대학 단대마당이 진행됐다. 13시에는 미래융합학부1, 16시에는 미래융합학부2로 두 차례 나누어 운영됐다. 자유전공학부는 희망하는 전공이 있는 학부로 참여했다.

미래융합대학 단대마당은 OT, Q&A, 레크리에이션순으로 구성됐

다. 또한, 미래융합대학에 소속돼 있는 전공의 단과대도 간단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입생 문화제는 입학식과 축하 공연, 단과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행사 준비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노력 속에 모든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신입생 문화제에 참여한 김도현(아텍 26) 학우는 "꿈이었던 서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돼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며 "입학식에 참석해 많은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이니 비로소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OT와 입학식에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선배와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등록금 동결... 팽팽했던 총학생회와 학교의 의견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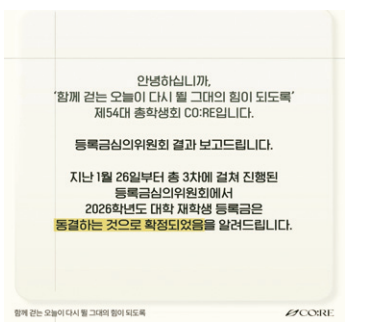
2026학년도 본교 등록금이 동결됐다. 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실제로 전국 58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제시했다. 통계적으로 주요 대학 10곳 중 9곳이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도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교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등록금 문제는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 핵심 안건 사안이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계속해서 등록금 동결을 요구해 왔다.

반면 학교 측은, 물가상승률과 학생 복지 향상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양측의 의견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열린 중운위 회의에서 등록금 동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다. 이에 총학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다시 등심위에 임



▲ 출처 :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했다. 총학과 학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등록금 논의는 세 차례에 걸친 등심위 회의 끝에 동결로 결론 났다.

본교에 재학 중인 미래융합학부 1 경영계열 A 학우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등록금을 동결시킨 것은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매우 적절한 것 같다. 동결을 해 노력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싶어하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제76회 전기 학위수여식 성료, 학문의 요람을 벗어나 세상으로



지난 2월 10일(화), 우리대학 문예관 문예홀에서 제76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우리대학은 박사 29명, 석사 148명, 학사 1,104명 등 총 1,281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내빈, 보직교수들과 학교 관계자,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국민의례 △학위증 수여 △상장 수여 △공로상 수여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체수석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최우수상 이사장상은 미용예술대학

메이크업디자인학과 로성령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인문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이주연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조영인 △이공대학 도시공학과 임혜지 △공연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김지윤 △디자인&영상대학 디자인학부 김다현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강유나, 키티 통 학생이 각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상 총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위증, 수상자의 상장 및 상품 등은 10일부터 학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2시부터는 학과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우들은 졸업증서를 교부받으며 대학 생활의 끝을 알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헤인관 주차장이 16시까지 무료 개방됐으며 포토존 외에도 영수증 사진기 촬영이 가능했다. 포토존은 청운관 L층에서 9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됐고, 영수증 사진기 촬영은 10시 10분부터 16시까지 똑같이 청운관 L층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코어 총학생회는 9시부터 16시까

지 청운관 L층에서 학사복 및 학사모 대여 사업(이하 학사복 대여 사업)을 진행했다. 최종 반납 시간은 16시로 현장 대여자는 대략 3만 원에 보충금 없이 대여할 수 있었으며 학사복 및 학사모는 신분증 확인 및 보관 후 대여가 진행됐다.

대여 사업을 진행한 코어 총학생회 김승준 미래교육국장은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온 학우로서, 또 이번 졸업 행사를 맡아 준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졸업에 맞이한 김서현(이동 22)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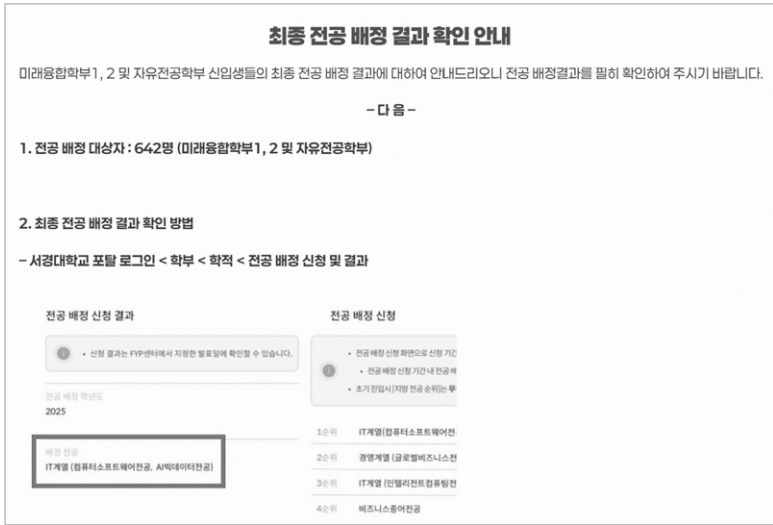
우는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기도 했던 시간은 졸업 후에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분의 아동학과 교수님께 4년간 배우고, 교수님께서 아낌없는 상담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다시금 새로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고 싶다"며 졸업 소감을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미래융합학부 · 자유전공학부 신설 이후 첫 전공 배정 진행, 전공맛보기 신설



▲ 출처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지난 1월 21일, 미래융합학부 1·2(이하 미용1·2) 및 자유전공학부 (이하 자전) 25학번을 대상으로 한 최종 전공 배정 결과가 공지됐다.

전공 배정은 △FYP포인트 △모의 토의 점수 △교과성적(1학기 30% · 2학기 70%)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5차례 진행된 희망 전공 수요 조사가 반영됐다.

미용1·2 및 자전 휴학생 전공 배정은 1학년 2학기 휴학의 경우 1학년 1학기 FYP포인트, 모의토의 성적, 1학기 교과성적(30%)을 반영해 배정받을 수 있었다.

전공 배정 공지 이후 1월 26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서 전공 미배정 대상 학우를 대상으로 한 최종 전공 신청 안내가 게시됐다.

선택이 가능한 전공으로 미용1 및 자전은 △비즈니스 영어전공 △비즈니스 일어전공이 있었고, 미용2 및 자전은 △아동청소년교육전공 △IT계열(인텔리전트컴퓨팅 · 디바이스)이 있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전공 배정은 입학 성적 기준에 따른다. 단일 희망 전공이 없다면 재휴학 신청 후 2026학년도 2학기에 복학해 1학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26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최종 전공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전공 미배정 학우를 대상으로 한 최종 전공 선택은 2월 27일 발표됐고, 수강 신청은 3월 9일(화)부터 3월 17일(월)까지 수강 정정 기간에 진행됐다.

IT계열(인텔리전트컴퓨팅 · 디바이스)을 희망해 전공을 배정받은 A학우(미용2 25)는 "열심히 노력해 원하는 전공으로 배정돼 안도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공별 모집 인원, FYP포인트 커트라인 등 공

지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앞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용1·2 및 자전을 대상으로 한 '전공맛보기'가 올해 신설됐다. 기존에는 '전공탐색세미나'와 '진로탐색세미나'를 통해 전공을 탐색할 수 있었지만, 26년부터 희망 전공 수업을 들으며 더 깊은 전공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전공 맛보기는 다음과 같다. 미용1 및 자전은 비즈니스영어&일어, 비즈니스&파이낸스가 개설됐다. 미용2 및 자전은 공공행정&경찰행정, 토목건축 · 도시계획 · 환경화학이 개설됐다. 미용1·2 및 자전 공통으로 IT계열전공 전공맛보기가 개설됐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막막한 논문 작성 이렇게!

DBPIA · CITEASY 교육 진행



▲ 출처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지난 2월 11일,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인 DBpia 교육을 학술정보관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었다. 줌을 통한 온라인 특강으로, 'DBpia 파트'와 'DBpia AI, CITEASY 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DBpia 파트는 △논문 읽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 DBpia 이용 방법 △리포트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고품질 자료조사 방법 △어렵기만 한 논문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논문읽기 첫걸음 △리포트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출처, 참고문헌 표기 첫걸음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1주 차 2월 12일, 논문을 읽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 DBpia 이용 방법을 논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DBpia 부가 기능 사용과 논문 찾기,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다음날은 리포트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고품질

자료조사 방법은 리포트 자료조사의 중요성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찾기를 설명했다.

교육 2주 차, 2월 26일에는 어렵기만 한 논문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논문 읽기 첫걸음은 논문을 구성하는 파트별 특징을 알아봤다. 다음날인 27일, 리포트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출처, 참고문헌 표기 첫걸음은 리포트 작성 시 올바른 인용 방법을 설명했다.

DBpia AI, CITEASY 파트는 '리포트와 논문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DBpia AI 이용 방법', '출처 표기를 쉽고 정확하게: Citeasy 이용 방법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1주 차 2월 4일 진행된 리포트와 논문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DBpia AI 이용 방법 교육은 DBpia AI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기능 중 AI부여, AI아이디어, AI에이저트 사용방법을 알아봤다. 2주 차인 2월 11일, 출처 표기를 쉽고 정확하게: Citeasy 이용 방법은 리포트 · 논문 작성 시 인용의 중요성과 CITEASY를 이용해 참고문헌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 외에도 3월부터 학부생 학업 역량 강화 교육, '대학원생 연구 방법론 특강' 등Zoom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제1대 미래융합대학 1·2 및 융합대학 학생회 출범...학생자치의 '새로운 시작'

2026년부터 미래융합대학 학생 자치를 미래융합대학 1·2(이하 미용1·2)로 분리해 운영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개편된 융합대학 역시 학생회 출범을 알렸다.

제1대 미용1 학생회 '새움'은 미용1, 자유전공학부 학우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학생회장 유지섭(미용1 25) 학우와 부학생회장 강유신(미용1 25) 학우는 '새로움으로 여는 오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주요 공약으로 △미용인의

발 △소통창구 활성화 △장부 공개 △제휴식당 활성화 △미용1 MT △개강총회 △복지물품 활성화 △FYP 소개(안내) △선후배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제1대 미용2 학생회 '영원'은 미용2, 자유전공학부 학우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학생회장 정재윤(공공 공공인재전공 23) 학우와 부학생회장 최원진(미용2 25) 학우는 '함께 꿈꾸는 미래, 함께 이어갈 영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임기를 시작했다.



▲ 출처 : 총학생회 블로그

영원은 주요 공약으로 △미용2 MT 진행 △소통창구 활성화 △시험기간 간식 지원 △좌석좌우 행사 개

최 △사무장부 공개 △단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복지물품 구비 △미용2 학사일정 제작 및 SNS 공유를 내걸었다.

제1대 융합대학 학생회 '모아'는 군사학과(23학번 이후), 아트앤테크, 놀로지학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학생회장 김서영(아텍 23) 학우와 부학생회장 나승우(스텍 23) 학우는 '융합의 가치를 더 크게 모아'라는 슬로건과 함께 임기 시작을 알렸다. 모아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 MT 추진 △투명한 장부 공개 △시험기간 간식지원 △익명건의함 및 소통창구 개설 △e-sports 대회 개최

올 한 해 새롭게 출범되는 '새움', '영원', '모아' 학생회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학우들의 결을 지키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주요 사항 알아보기

지난 1월, 인성교양대학에서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양 졸업 요건과 교육과정편성표에 관련된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2026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World English 1·2(커뮤니케이션영 어 1·2) 졸업 요건이 폐지된다. 2017학번~2024학번 중 위 과목을 이미

수강했다면 교양필수(이하 교필)가 아닌 교양선택(이하 교선) '사회와 세계'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학번마다 달라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교양이수학점을 알아보자. 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수 개별 교과목 이수 및 교선(균형교양) 영역 이수 요건이 모두 면제되고 교양 이수학점이 20학점이 된다.

2017학번~2019학번은 22학점, 2020학번은 28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 중 2017~2020학번은 교선의 영역/역량 구분 없이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2021~2024학번은 교선 영역별 1과목 이상, 총 15학점 이상 이수해 교양이수학점 33학점을 달성해야 한다.

미래융합학부 1·2(이하 미용1·2) 및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 학생의 경우 교양이수학점 37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3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 미용1·2 및 자전 학생들은 교선 총

15학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외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선 총 18학점을 획득해야 한다. 미용1·2 및 자전 학생들과 그 외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 모두 교선 영역별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017~2024학년도 입학자에게 해당하던 기존 교필 교과목이 폐지되고 교필 대체재수강 교과목이 신설된다. 창의/문제해결 역량의 교과목 △상상력에의초대 △MZ세대창의력 △문제해결의힘 △MZ세대문제해결이 '창의문제해결프로젝트'로 통합된다. 대인관계역량의 교과목 △홀리스틱리더십 △MZ세대대인관계가 '미래리더를위한대인관계'로 변경된다. 자기개발역량의 교과목 △내 인생의성공학 · 실패학 △MZ세대자기계발이 'Life Care Design'으로 신설된다. 실무역량의 교과목 △직무리더십 △MZ세대법 이야기 △MZ세대글쓰기와토론이 'Communication'으로 변경된다.

글로벌역량의 교과목 △World Wide English 1·2 △Global English 1·2가 'College English 1·2'로 수정된다.

지난 2월, 교무처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사 제도 개편 사항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기존의 1학기 이상 이수였던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신청 자격이 미용1·2 입학생은 4학기 이상으로 미용1·2 이외 학과(부) 재학생은 2학기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의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명칭이 '연계융합전공'으로 수정되고 신청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에서 2학기 이상 이수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72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던 심화전공의 이수학점 기준이 60학점 이상으로 축소된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대학 생활의 첫 단추, '국가장학금'... 3월 17일까지 2차 신청 기간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이 재단 홈페이지와 앱 '한국장학재단'으로 지난달 3월 9일부터 오는 3월 17일 18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연계해 학자금 지원구간(0~10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1 유형 ·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기초 · 차상위 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1차와 2차 기간으로 나뉜다. 일반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원칙이다. 신 · 편입생, 재입

학생, 복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이 2차 기간에 신청한다면, 최대 2회의 구제 신청 제도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다. 이후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백분위 80 이상, 신입생 미적용)을 충족하고, 가구원 동의를 비롯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을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수혜가 가능하다.

장학금 지급 방법은 개인별 소득구간 산정 완료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차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내 학비 감면을 받고, 2차 기간에 신청할 경우엔 학기 중에 받는다. 신입생의 경우,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먼저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국가장학금 관련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유료 전화 상담(1599-20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교 장학과(02-940-7085)에서도 일부 안내가 가능하다. 참고: 한국장학재단, 한겨레신문.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북극 패권과 동맹 사이의 위험한 저울질, 미국의 야망과 현실</p>	<p>경제</p> <p>코스피 6,000 시대 개막... 코스피를 이끈 공신은?</p>	<p>사회</p> <p>서울 쓰레기가 충청 · 강원까지... '쓰레기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p>	<p>문화</p> <p>정부 문화의 날 확충,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p>	<p>연예</p> <p>'왕과 사는 남자', 1200만 명 돌파... 36일만 대기록</p>	<p>스포츠</p> <p>'17일의 드라마' 밀라노 올림픽 폐막... "4년 뒤 알프스서 재도전"</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북극 패권과 동맹 사이의 위험한 저울질, 미국의 야망과 현실



출처: BBC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는 1월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호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월 9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며 “그린란드

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좋아하던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참고: 연합뉴스).

미국은 과거부터 그린란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린란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냉전 시대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1951년 덴마크와 군사방위조약을 맺고 만든 공군기지를 확대 개편한 피투픽 우주 기지다. 이 기지엔 고성능 레이더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조기 경보 체계 등이 배치됐다(참고: 주간동아).

이런 미국의 팽창적인 행보에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웨덴 스텐 마르 스스페인 스영국 스이탈리아 스폴란드 스프랑스 등 7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 성명에서 7개국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다. 또 북극권의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의 협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참고: 연합뉴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본지 인터뷰에 응한 20대 A 씨는 “하루빨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좋겠다”며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 세계인이 혼란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의 목표인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그 면적이 한반도의 10배 정도 된다. 그린란드에는 현재 대략 5만 7,000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누이트족으로 수도 뉴크를 중심으로 한 남서부 해안 지역에 몰려 산다. 또 그린란드는 1721년부터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1979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분야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2009년 제정된 자치법을 통해 더 욱더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획득했다(참고: BBC).

짧은 자치 역사를 지닌 그린란드는 미국의 자국을 향한 열망에 거부감을 내비쳤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며, 우리의 영토 보전성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코스피 6,000 시대 개막... AI 반도체와 로보틱스가 이끈 '질주'



출처: KB국민은행

지난 2월 25일,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9% 상승한 5,969.64포인트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선 지난 10월 27일 이후 1달, 1월 27일 5,000포인트를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세운 기록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코스피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기업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고대역폭메모리(이하 HBM)’ 수요 급증과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 등 실적 기대치를 끌어올리며 외국인 매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4’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2월 24일 13시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했다.

HBM4는 엔비디아에 공급돼 차세대 AI 칩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HBM4 반도체란 D램 칩을 수직으로 12~16단 이상 쌓아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AI 메모리다. 기존 ‘HBM3’ 대비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이 대폭 향상돼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HBM 반도체 경쟁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27.2% 늘어난 176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3% 증가한 72%로 전망된다. 2월 24일 기준 하이닉스 주가는 오전 10시부터 급등해 100만 원을 달성했다.

한편, 1월 21일 ‘현대차’ 주식은 사상 최초로 50만 원을 넘어섰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외에도 △ 자율주행 △로봇 △UAM(Urban Air Mobility) △반도체를 통해 산업 다각화를 꾸리고 있다. 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이하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하드웨어와 이동성 중심의 로보틱스를 넘어 AI를 활용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환을 선언했다.

동시에 ‘아틀라스’를 CES 2026 현장에서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에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1.9m의 키와 360도 회전 관절이 적용돼 사람보다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지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공장 제조 현장 투입과 대량 생산 계획을 밝혔다.

한국 경제는 코스피 상승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환율, 금리, 경기둔화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선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단순히 주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 말고도,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등 자본시장 구조 전반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서울 쓰레기가 충청·강원까지... ‘쓰레기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출처: 경향신문

지난 1월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지방으로 반출돼 ‘월정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월 27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구 2,000t, 경기 광주시 1만 7,000t의 소각용 쓰레기가 충남 서산·당진 등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됐다고 비판했다(참고: 디트뉴스24).

이번 사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입이 금지됐다. 재활용이나 소각을 거쳐 부피를 줄인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 취지는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 대응이다. 그러나 2021년 입법 예고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신규 공공 소각시설은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았다. 처리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립만 금지되자 일부 자치구는 충청·강원 지역 민

간 소각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단양·삼척 등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했다.

갈등은 지역 내부에서도 끊고 있었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t 규모 소각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포구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난지도 매립과 750t 규모 소각장을 운영 중으로 이미 구내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참고: 한국NGO신문).

일각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딜레마’를 수도권 거주자들의 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 사안을 단순한 지역이기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설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통보식 절차’가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참고: 동아일보).

앞서 서울시와 한소 중민 박강수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박 구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쓰레기가 늘어난 만큼 소각장 수를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각 쓰레기 감량,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소각제로 가게’ 확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지나 구매비용 인상 등 제도 개선으로 생활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는 환경을 모색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직매입 금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책임은 결국 지역 간 ‘폭탄 돌리기’로 전락했다.

시민 인식과 정부의 정책 설계 모두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쓰레기 대란의 끝은 무엇이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정부 ‘문화가 있는 날’ 확충,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을 선언하며 영화계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이용자의 반응이 대비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날이다. 특히 박물관·미술관·공연장·궁궐 등 전국 2천여 개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민간 문화시설에서 체험 행사와 무료입장이 늘어나는 등 이용료 혜택이 제공되며 문화 참여가 확산됐다.

지난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월 1회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 초반 28%대에 불과했던 국민참여율이 10년 만에 84%까지 치솟아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체부는 현재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해당 행사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대폭 넓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17시부터 21시까지 주요 영화관의 2D 영화를 7천 원에 볼 수 있어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이 같은 확대 방침에 영화 산업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는 “기존 할인 혜택이 민간이 할인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라 매주 할인 제공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할인 확대가 객단가 감소와 주말 관객 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월 1일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민간이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각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료 무료 등의 할인 혜택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민간이 정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영화 티켓값과 같은 할인은 민간이 정부 보조 없이 전적으로 부담하기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지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혜택 제공을 위해선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계를 비롯한 테마파크·공연장 등 다양한 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할인 혜택이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업계는 정부의 보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와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 정책 전문가들은 확대가 국민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할인 부담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제도적 확대가 실제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접근성을 높이면서 산업 전반의 상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출처: 뉴스1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총장 축사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정답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낡은 지식이 되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과 가치가 내일은 당연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에 들어온다는 것은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갈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서경대학교는 바로 그 힘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대학은 답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곳입니다. 왜 이 선택이 의미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세상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시대에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분명히 품으십시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공간입니다.

분명한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느리더라도 끝내 앞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도전하고 경험하십시오. 대학은 실패해도 괜찮은 거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봉사활동, 공모전, 인턴십, 창업, 여행, 독서, 글쓰기 등 수많은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넘어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AI, 빅데이터, 로봇, 드론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이미 우리의 삶과 교육,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융합형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AI 시대의 리더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지식과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업과 소통 속에서 다른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는 지적 성숙함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가이자 따뜻한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에게 완성된 길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의 순간에 외롭지 않도록이 자리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렘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렘은 언젠가 책임이 되고, 그 책임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4대 CO:RE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구진모



안녕하십니까,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뿔 그대의 힘이 되도록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 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구진모입니다. 먼저, 치열한 시간을 거쳐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신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준'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부합하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대학 생활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장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는 여정의 시발점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머뭇거리가 아니라, 부단히 자신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좌표를 정립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시간 끊임없이 주변을 고찰하며 제게 부여된 소명을 찾고자 분투했습니다. 내면의 신념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일보씩 전진하다 보니, 그 족적들이 모여 지금의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과거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예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기에, 여러분 앞에는 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괄호 치고 자신을 신뢰하며, 여러분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서경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가장 친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2026년, 그 시작과 끝에 총학생회 CO:RE가 견고한 버팀목이 돼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4대 CO:RE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태휘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뿔 그대의 힘이 되도록'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 부총학생회장 군사학과 23학번 김태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본교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CO:RE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에서의 새로움을 열어가신 신입생 학우분들이 영원한 여정을 끊임없이 피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신입생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와 신입생 학우분들을 하나로 이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푸른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사회초년생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따른 두근거림과 약간의 걱정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 라는 존재를 믿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이 출발은 훗날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서경대학교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입학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하며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 CO:RE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대 여정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유아영



안녕하십니까, 제28대 여정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군사학과 23학번 유아영입니다.

우선, 2026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따스한 봄이 다가온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니 저 역시 몇 년 전 입학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두근거림과 약간의 긴장감이 아직까지 생생하기에, 이렇게 축사를 전할 수 있음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처음 맞이하는 대학 생활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 전공에 대한 고민 등 많은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한층 더 성장시킬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학을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닌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여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정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경대학교에서의 시간들이 훗날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을 때 가장 빛나는 추억이 되길 바라며 신입생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5대 연화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손진석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순간을 품고, 끊임없이 피어나라" 제35대 연화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22학번 손진석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힘든 과정들을 거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만큼 학교생활이 더욱 빛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는 축사를 작성하면서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건물 위치 하나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으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잘 이끌어 주시는 선배들, 교수님들이 있기에 어려운 학교 생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 저를 믿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고 이공대 정학생회장이라는 책임감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도 처음 학교생활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 잘 헤쳐 나가며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또 이공대학 정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항상 보람차고 즐겁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대 이음 통합예술대 정학생회장 장해승



안녕하십니까, '이음으로 예술을 잇다' 제28대 이음 통합예술대 정학생회장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3학번 장해승입니다. 합격자 발표 화면을 바라보던 순간의 떨림, 설렘과 동시에 찾아왔을 작은 불안까지 그 모든 감정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을 보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입학울 축하드립니다.

예술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견뎌내고 마음먹는 일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드러내야 하는 용기를 선택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시간조차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비교로 완성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쌓인 시간 위에서 깊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실수도 과정이고, 방향도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음 통합예술대는 언제나 기대어 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이음 통합예술대 일동은 신입생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대 모아 융합대 정학생회장 김서영



안녕하십니까, '융합의 가치를, 더 크게 모아' 제1대 모아 융합대 정학생회장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3학번 김서영입니다.

먼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에 큰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출발선에서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대만큼이나 낯설고 걱정도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대학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지 불안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은 시작점에서 함께 걷는 동기를, 항상 곁에서 도와줄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단과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실패보다 성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학생회는 신입생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대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보내게 될 시간이 의미 있는 배움과 소중한 추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시 한번 입학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대학교 2026학번 학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영균 (서경대신문 주간)

우리 2026학번 여러분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에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차근차근 교양을 쌓고 관점의 폭을 넓혀갈 때입니다. 또한 저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진지하게 탐색해 보고 방향을 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중요한 시기를 우리 서경대학교에서 모조록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만 옷만이 혼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과

함께하고 즐거움은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대학은 준비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의 지성과 역량을 높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동아리 활동이나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사귀고 학문과 학

계 건문의 폭도 넓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고 통나는 대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충분한 여가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집장 심화평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대 편집장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5학번 심화평입니다. 26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난 길이었던 수험 생활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시고, 많은 것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대학의 동아리 알림제, 대동제, MT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대학 생활 가운데 느낀 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회가 다음으로 미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신문사에 들어오자 마음먹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이후 1년 간의 수습 기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어쩌다 보니 편집장 자리까지 맡아 올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건 본인의 노력과 성실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달려보세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따라 조급해지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자의 길이 꽃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1년간 학내 소식을 전달하는 저희 신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70대 부편집장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김호성입니다. 축사에 앞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전역을 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신입생 입학 축사를 쓰는 날이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노력하며 흘렸을 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캠퍼스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대학은 단순히 학업에만 열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를 비롯해 여러 활동에 도전하며 성장하는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알찬 대학 생활이길 성원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입학했던 지금, 이 마음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 내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고, 언젠가는 분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여정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부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 제68기 보도부장 아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포근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는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역시 입학 당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대했던 순간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 또한 지나고 나니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시간표부터 부가적인 활동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본인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입학 이후, 지금까지의 4년은 모두 제 손으로 만들어온 결과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의 후회도 섞여 있으나 저는 제가 만들어온 길이 딱 애뜻하기만 합니다. 실패하고 울고 화났던 경험에서도 꼭 나쁜 것만 얻어온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당연하게 넘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소중한 거 같아 집니다. 이제 곧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는 4학년이라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보내게 될 그 날은 누군가가 가장 희망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성에 차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생기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에서의 모든 날이 빛나는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김경민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김경민입니다.

봄도 마음도 시리게 하던 겨울이 어느덧 햇살에 녹아들었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개강을 맞아 축사를 쓰는 이 시간이, 해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제는 '화석'이 될까 말까 한 학번이라는 사실이 내심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입학하는 파릇한 학우들과 여전히 기운 넘치는 동기들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내려앉았던 먼지도 어느새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남은 대학 생활보다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이 더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되돌아보면 대학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와 닮은 듯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내 안의 세계를 넓혀가는 곳이었습니.

낮을 가린다는 평계로 공부 외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이 돌이켜보니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창문'입니다.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창문을 꼭 닫고 있기에는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늘 머무르던 방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도 눈부신 캠퍼스입니다.

서경대학교 입학, 그리고 새 학기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창문을 열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정기자 유승운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정기자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유승운입니다.

우선 26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된 수험 기간을 거쳐 우리대학에 진학하시게 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말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과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설렘과 불안함, 성인으로써의 첫 이정표 그리고 새로운 등갓길까지 여러분의 대학 입학은 새로운 일상과 경험의 토대로써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고등학교와는 다른 자유로움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게 될 강의 들은 사회에 완전히 나가기 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대학 생활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부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입생으로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도전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입니다. 실패나 성공은 언제나 그 결과로써 도전이라는 여러분의 시도 이후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도전이라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도전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마마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분명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그 결과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수습기자 김서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2 경찰행정전공 25학번 김서연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서경대학교의 일원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될 대학 생활이 값진 의미로 남길 바랍니다.

대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인으로써 새롭게 나아가는 공간이자 성장과 배움이 시작되는 공간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내신이나 수능처럼 경주에서 무조건 일등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경기가 아닌, 각자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서로 교차하고 함께하며 성장하는 넓은 광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대학의 시간 속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때로는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보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쌓여가는 경험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방향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마주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하며, 새로운 배움의 장에서 맞이할 모든 시간이 소중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에서 뜻깊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이요한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2 도시계획공학전공 25학번 이요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새 26학번이 입학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 저 또한 이 학교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막막함이 맴돌았습니다.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수업편이 어디인지, 내가 듣는 수업의 강의동이 어딘지... 새로운 것 천지였습니다. 어영부영 1학년 생활을 지낸 것 같다고 느꼈지만 되돌아보니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으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교내 근로도 해보고, 신문사에 들어가 학내 소식을 전하는 수습기자로 활동하기도 하며 스스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랜 수험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과 축제들로 들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주어진 틀에서 시간을 보내던 학창 시절과 달리, 스스로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미래를 위해 대외 활동, 동아리 등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건 망설임 없이 도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며 미련 갖는 것보다, 도전해 보고 실패해 보는 게 낫습니다. 저 또한 1학기 때 서경대 신문사에 지원하지 않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늦지 않으니, 기회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도전해 보세요!

다시 한번 26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경대 신문사에서 뵙길 소망합니다.

제1대 새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유지섭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새움' 미래융합대학1 학생회 정학생회장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유지섭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융합대학1 제1대 정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낯선 배움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설렘만큼이나 고민과 어려움의 순간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서로 다른 분야의 배움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생각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은 이곳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통해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으로 여는 오늘, 새움"이라는 슬로건처럼, 저희 새움 학생회는 여러분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영원 미래융합대학2 정학생회장 정재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영원 미래융합대학2 정학생회장 공공인재학과 23학번 정재윤입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이 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시작의 설렘과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문들이 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던 시간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간을 넘어, 자신을 스스로 탐색하고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경험하며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학업을 넘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향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같은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배움과 의미 있는 순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학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대 청연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황재윤



'동아리에 길을 있고, 푸른 청춘에 빛을 더하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42대 청연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물류시스템공학과 23학번 황재윤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26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오늘이 여러분의 청춘에 오래도록 남을 첫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은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이 함께 찾아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입학 당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도, 이 낯선 길 위를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도전했고, 넘어졌으며,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선택과 시련이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을 성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걸음입니다. 그 길 위에는 늘 함께 웃고 고민할 동료와 선배들이 존재합니다.

학업과 활동, 그리고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여러분의 푸른 청춘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길을 잇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와, 중앙동아리는 처음이지?

‘대학’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니 뭐니 해도 캠퍼스 생활의 ‘즐거움’ 그 자체일 것이다. 벚꽃과 함께 맞이할 중건고사나, 강의 시간을 꼭 채우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기대하며 입학하는 학우는 드물지 않을까.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되는 대학 생활은 강의실 안보다는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진다. 그 중심에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동아리다. 그 중, 중앙동아리는 본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이다. 중앙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총동아리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학과 내 동아리나 소모임과 구별되는 중앙동아리만의 이점이다. 수순학문부터 예체능 분야까지 폭넓은 전공 체계를 갖춘 우리대학. 이에 발맞춰 중앙동아리 역시 학술, 체육, 공연예술, 교양, 종교, 전시창작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취재부는 중앙동아리 운영 구조와 실제 활동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본교 총학생회 소속 총동아리연합회의 협

조를 받아 동아리 운영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이후 6개 분과, 총 23개의 중앙동아리 가운데 공연예술·학술·체육 분과를 중심으로 각 동아리의 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나의 대학 생활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분과는 어딜까? 그중 나의 적성과 흥미에 가장 맞닿아 있는 동아리는 무엇일까? 이번 기획을 통해 중앙동아리의 구성과 분과별 매력, 동아리 내부 모습까지 면밀히 알아보자.

동아리의 모든 것, ‘총동연’이 알려줄게!

대학 생활의 꽃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는 자치기구가 있다. 바로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다. 총동연은 중앙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간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교내 행사에서 중앙동아리의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조율하는 등 각 동아리가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듯 동아리 활동이 단순 취미를 넘어 대학 생활의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돕는 총동연의 황재윤(물류 23) 정학생회장을 만나봤다.

Q. 동아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는 각기 다른 취향과 가치관, 성격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동아리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과 협력이 이뤄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이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도 오래 남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하자면.
A.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하고 싶거나,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한 걸음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Q.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A.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하고 싶거나,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한 걸음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Q.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A.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하고 싶거나,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한 걸음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과 일정은 총동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동아리 중복 가입과 회비는?
A. 중복 가입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비 또한 각 중앙동아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금액, 납부 횟수, 납부 기간 등은 동아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동아리의 내부 운영 규정이나 활동 일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해당 동아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동아리방과 동아리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동아리방은 청운관 10~12층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는 동아리별 모임과 연습,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목록은 신입생의 경우 새내기 세로배출터, 재학생은 동아리 알람제 같은 교내 행사 기간에 제공되는 동아리 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총동아리연합회

Q. 동아리 알람제란?
A. 동아리 알람제는 교내 스포츠퀘어에서 진행되는 첫 공식 동아리 행사입니다. 총동연과 중앙동아리가 함께 기획·참여하는 행사로 참여 동아리들은 부스 운영과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를 소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동아리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Q. 중앙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중앙동아리의 신입 부원 모집은 각 동아리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집니다. 동아리의 운영 방식과 필요 인원, 활동 특성에 따라 모집 시기와 절차,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동아리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A.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하고 싶거나,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한 걸음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Q.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A.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하고 싶거나,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한 걸음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야구로 하나 되는 캠퍼스, 중앙동아리 ‘적시타’를 만나다

야구를 좋아하거나 다양한 학과 사람들과 낭만 있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누구든지 ‘적시타’의 문을 두드려라! 적시타는 하루하루 캠퍼스 위에서 힘찬 스윙을 하고 있다. 적시타는 교내 유일 야구동아리로 야구 경기는 물론 프로야구 관람까지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다. 선수부터 매니저까지 함께 모집해 구성원의 다양성도 고려하고 있다. 매주 동아리 자체 훈련과 대학야마주어야구리그, 다수 팀과의 연습경기로 꾸준한 야구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야구 외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강과 중강 파티를 비롯해 프로야구 직관,

MT 등 친목 활동을 이어가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현역으로 근무하시는 OB 선배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적시타는 야구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환영한다. 지난해 적시타 부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계시록 학우의 인터뷰를 들어봤다.

Q. 적시타 동아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A. 적시타는 정기 훈련, 리그 참가, 프로 경기 직관 등 야구동아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어가는 동아리다. 이런 면에서 야구를 좋아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신입생들에게 손색없는 동아리라고 생각한다.

Q. 동아리 분위기는?
A. 친목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고 동아리 부원들 간의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 항상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야구를

못하거나 야구를 몰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가르쳐주시고 소외되지 않게 많은 선배님이 도와주셨다. 올해 적시타 회장을 맡게 된 공공인재학부 23학번 A 학우는 “적시타는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팀의 결속을 동시에 실현하는 ‘팀워크’를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단한 팀워크는 단순히 실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끝내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유대감을 경기장 안에서 서로의 실책을 덮어주는 든든한 팀원으로, 경기장 밖에서는 고민을 나누는 선배배로 존재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동아리 방향성을 밝혔다. 중앙동아리 체육분과에는 적시타 외에, 도 MMA 기반 격투기 동아리 ‘디펜스’, 볼링을 지며 즐겁게 정수를 경쟁하는 볼링 동아리 ‘핀스리’, 스포츠퀘어에서 낭만 있게 보드를 타는 ‘OZ’가 있다. 더불어, 농구를 즐기며 경기도 직접 관람하는 ‘스쿠바’와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한 서핑·스키 등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SST’, 중국 다도 및 무술을 즐길 수 있는 ‘생무림’이 있다. 체육 분과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다양한 체육 동아리가 존재하니 눈여겨보길 바란다.



▲ 출처 : 적시타 인스타그램

동아리는 대학 생활 중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교내 활동의 하나다. 학업 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도 대학 생활의 묘미다.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사람과의 인적 교류를 비롯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건문을 넓힐 기회이기도 하다.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4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동아리 알람제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동아리 알람제는 앞서 언급했듯 중앙동아리 관련 부스를 운영해 각 동아리를 직접 소개하는 총동연 주관 행사다. 이 외에도 공연과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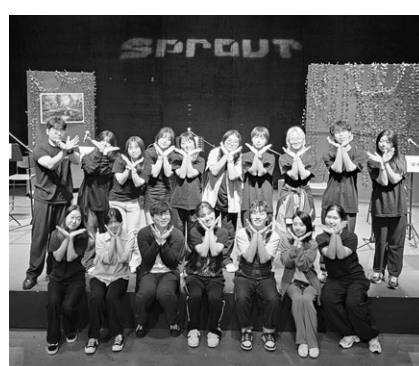
또한,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홍보 게시판을 비롯한 여러 게시판에 동아리 홍보물이 올라와 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지인을 통해 동아리를 접하거나, 총동연을 비롯한 각종 동아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입하

는 방안 등 다양하다. 이번 기획 면에서는 2026년 본교동아리 일부를 살펴봤다. 본문에 소개된 동아리 외에도 △교양분과 ‘공백’, ‘다음’ △종교분과 ‘IVF’, ‘CCC’, ‘UBF’ △전시창작분과 ‘미상’, ‘애니문’, ‘난반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관심 있는 동아리에 한 걸음 먼저 다가와 보자. 새로운 인연과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기다리고 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중앙동아리와 함께 모두가 재밌고 알찬 대학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누구나 꿈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곳, 중앙 뮤지컬 동아리 ‘UDream’

‘나의 꿈.’ 꿈의 무대를 향해 함께 활동 하자는 의미를 담은 UDream(이하 유드림)은 4번째 정기 공연을 목표로 올해도 힘차게 달려간다. 2022년 교내 최초 뮤지컬 동아리로 결성된 유드림은 2023년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식의 첫 번째 정기 공연 ‘To Your Dream’과 2024년 두 번째 정기공연 ‘U Show’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리고 2025년 유드림은 창작 공연에 도전, 세 번째 정기 공연으로 창작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Sprout)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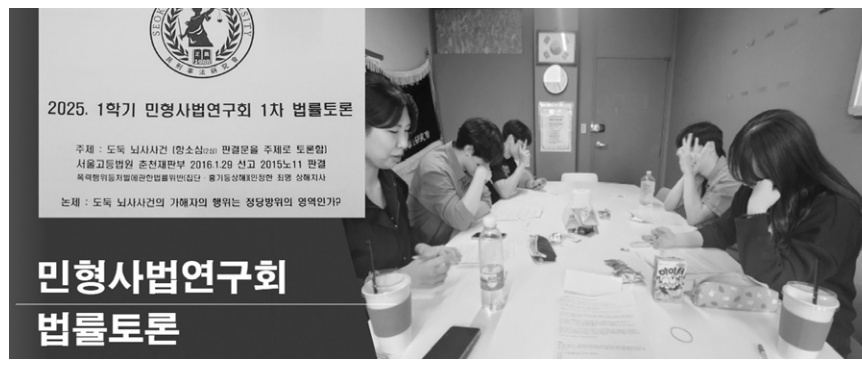


‘Sprout’는 기존의 갈라 콘서트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완성된 공연을 만들어서 올려보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했다. 처음 준비하는 형태의 공연이자 쉽지 않은 창작이라 막막했지만, 여러 부원이 힘을 합쳐 준비하며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동아리에 작곡과 극본이 가능한 부원들이 있어 기획이 더욱 탄탄해졌고, 각자의 역할이 공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기자는 유드림 소속으로써 이번 공연에 기획팀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부원 모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

올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창작 연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 창작 연극은 (Sprout)의 막내 조연출을 맡았던 연승은(마음1 25) 회장이 메인 연출을 맡았다. 연 학우는 창작 뮤지컬에 이어 창작 연극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창작 뮤지컬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창작이 주는 매력과 즐거움을 느꼈다”며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시도해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창작 연극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 뮤지컬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끝까지 진심을 다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고 싶은 학우들은 유드림에서 창작극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동아리 공연예술분과에는 중앙 뮤지컬 동아리 유드림 외에도, 중앙 밴드 동아리 ‘워커스’와 ‘그라미’, 그리고 랩, 보컬, 댄스를 할 수 있는 중앙 공연 동아리 ‘SDR’이 있다. 공연예술분과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학우들은 4곳의 동아리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겁먹지 마세요” 법과 사람, 모두와 친해지는 ‘민형사법연구회’

서경대학교 학술분과 소속 ‘민형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 이후 명맥을 이어온 중앙동아리다. 동아리 이름 때문에 공공인재학부 과 동아리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학과와 무관하게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름은 오랜 역사의 증표일 뿐”이라며, 민형사법연구회를 “법학에 대한 가벼운 관심이나 친목을 위해서 부담 없는 동아리”라 소개하는 회장 오준현 학우(공공경찰행정 21)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출처 : 민형사법연구회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경찰행정 전공 4학년, 민형사법연구회 회장 오준현입니다.

Q. 동아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A. 저희 민형사법연구회는 법학적 소양을 넓히고 동시에 학우 간의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정기 활동이 있는가.
A. 매 학기 개강 및 종강 총회, MT를 열고 있으며, 격주로 법률 토론을 엮니다. 토론은 판례나 시사물 주제를 해 의견을 나눕니다. 단순히 찬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상의 행정처분을 설정해 역할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등 몰입감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재판 방청과 기관 탐방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대검찰청 견학 및 포럼에 참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자율 참여입니다.

Q. 공공인재학부 소속이 아니어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
A. 부원 40%가 공공인재학부 소속이며, 그 외 다양한 학과 소속이 섞여 있습니다. 학부 통합으로 미래융합학부·자유전공학부 부원 비중도 늘고 있어 전공과 무관하게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원 모집 기간, 인원은?
A. 별도의 모집 기간이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동아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동아리명만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심화 활동을 원하는 학우들을 위해서는 담당 교수님과 관련 논문을 작성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으니 함께했으면 합니다. 민형사법연구회와 함께 즐겁고 뜻깊은 학교생활을 이어나시길 바랍니다.

Q. 민형사법연구회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A. ‘민사스터디’라는 시험 기간 스터디를 운영합니다. 학습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에, 부원 간 교류와 학점 관리를 함께 도모한다는 점

이 학술분과로서 가지는 차별점입니다.

Q. 동아리 회비는?
A. 가입비 5,000원, 학기당 회비 15,000원을 받습니다. 학기별 회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와 활동비로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Q. 동아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동아리명만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심화 활동을 원하는 학우들을 위해서는 담당 교수님과 관련 논문을 작성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으니 함께했으면 합니다. 민형사법연구회와 함께 즐겁고 뜻깊은 학교생활을 이어나시길 바랍니다. 본교 학술분과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에는 이 외에도 ‘연자’, ‘oo’, ‘뽕뽕이’ 처럼 등이 있다. 학문적 탐구와 학우들과의 교류를 모두 원한다면, 학술분과 중앙동아리를 눈여겨볼 만하다.

겨울철이 되면 헌혈 참여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다. 왜 겨울철에는 헌혈 참여가 급감할까? 그 이유는 주요 참여층인 학생들의 방학과 겨울철 추위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헌혈가능인구'가 줄어든 것 역시 한몫한다. 연말과 연초에 걸쳐 유행하는 독감 역시 헌혈에 영향을 미친다. 25년 연말에 유행한 K 변종 독감으로 인

해, 올해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다른 때보다 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헌혈 참여자는 169만 6,096명이었다. 반면 지난 2024년에는 약 126만 4,525명으로 10년 새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감소세로 하루 평균 혈액 보유량은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인 '관심 단계'에 머물며 혈액 부족에 직면했다. 올해 1월,

이런 어려움을 딛고 헌혈 참여율은 3배 가까이 늘었다. 관심 단계에 있던 하루 평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인 '적정 단계'로 회복된 것이다. 혈액 보유량 회복엔 일명 '두쫘쿠'라 불리는 디저트, '두바이 쫘득 쿠키'가 있다. 두쫘쿠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며 유행하기 시작했다. 헌혈의 집은 이런 인기를 감지하고 선착순으로

두쫘쿠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픈런과 웨이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던 두쫘쿠를 헌혈에 참여해 받을 수 있던 정보가 퍼지자, 헌혈의 집으로 사람이 몰렸다. 그 덕분에 헌혈의 집의 혈액 수급량은 정상화될 수 있었다. 이런 헌혈 열풍 속, 헌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쫘쿠' 열풍, 인터뷰를 통해 직접 느껴보다



▲ 출처 : 서울동부혈액원

'헌혈의 집'과 '오픈런', 생소한 두 단어의 조합은 요즘 가장 자주 붙어 다니며 뉴스와 소셜미디어의 상단을 연이어 장식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두 단어를 하나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만든 것은 이른바 '두쫘쿠' 열풍이다. 헌혈의 집에서 이벤트로 두쫘쿠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헌혈의 집은 헌혈을 위해 모여든 인파로 북적이며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 동부 혈액원 관계자 A 씨는 "두쫘쿠를 위해 처음으로 헌혈한 사람이 많다"며 "두쫘쿠 이벤트를 진행한 날에는 어플을 통해 헌혈을 예약한 헌혈자가 평소보다 3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벤트를 통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좋다"며 "두쫘쿠를 통해 처음 헌혈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해 장기 헌혈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쫘쿠 이벤트 전후의 추이를 보면 이벤트 전 주인 1월 9일, 서울중앙 혈액원 관할 8개의 헌혈의 집에 찾아온 헌혈자는 308명으로 집계됐다. 두쫘쿠 이벤트를 진행한 1월 16일은 668명으로, 약 2.2배 많은 수가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국 연령별 헌혈 건수 현황에서 10대는 약 84만에서 50만 건으로, 20대는 약 108만 건에서 89만 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헌혈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두쫘쿠 이벤트는 청년층의 발걸음을 헌혈의 집으로 향하게 했다.

소상공인의 두쫘쿠 기부도 이벤트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부산의 지역 카페 3곳은 두쫘쿠 700개를 기부하며 헌혈 홍보에 힘을 보탤다. 그중 1곳은 2월 말까지 매주 100개의 두쫘쿠 기부를 약속하며 헌혈의 집에 꾸준히 배달이 이어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지역 카페 9곳이 두쫘쿠 1,500개를 기부하며 헌혈의 집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단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더했다.

헌혈의 집 두쫘쿠 이벤트에 참여한 20대 B 씨는 "영화표를 얻기 위해 시작한 헌혈이 꾸준히 이어져 평소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편"이라 밝히며 "우연히 두쫘쿠 이벤트와 헌혈 주기가 맞아 헌혈도 하고 좋아하는 두쫘쿠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헌혈의 집 두쫘쿠 이벤트에 대해서는 "헌혈 후 초콜릿이와 같은 과자를 제공하는 것처럼 두쫘쿠를 제공하는 것은 헌혈자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벤트에 참여한 10대 C 씨는 "두쫘쿠 이벤트를 위해 처음으로 헌혈을 해봤다"고 전하며 "헌혈하는 과정이 아플까 봐 무서워서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두쫘쿠를 먹기 위해 용기를 내봤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았다"며 "이번 두쫘쿠 이벤트를 계기로 친구들을 따라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두쫘쿠'가 뭐길래? 붙어오는 헌혈 열풍

지난 1월 23일, 광주전남혈액원은 9개 헌혈의 집에서 두쫘쿠 증정 행사를 한 결과 전체 헌혈자가 1,002명으로 1월 하루 평균보다 2.8배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혈구 기준 혈액 보유량이 3.5일분이었던 1월 23일에 비해 25일에는 5.5일 치로 늘어 권장량인 5일분을 넘기도 했다.

이렇듯 헌혈 후 증정품으로 두쫘쿠를 제공한다는 말에 헌혈은 연일 순항 중이다. 두쫘쿠가 대체 무엇이길래 혈액난을 한 번에 뒤엎을 만큼 헌혈자를 늘린 것일까?

두쫘쿠 열풍은 2021년 한국에 착륙한 두바이 초콜릿에서부터 시작한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 구워서 바삭한 식감을 살린 튀르키예와 아랍 지역의 전통 곡수 면인 카다이프를 넣어 섞고, 이를 초콜릿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 두바이 초콜릿이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맛에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챌린지가 유행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두바이 시리즈 열풍의 표문을 열었다.

이후,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조합을 이용한 여러 유형의 디저트가 발명되고, 그 중 현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디저트가 바로 일명 두쫘쿠라 불리는 두바이 쫘득 쿠키다. 두쫘쿠는 카다이프를 섞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초콜릿으로 덮는 대신 마시멜로를 녹여 만든 쫘득한 피로 감싸고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그 위에 카카오 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찹쌀떡을 떠올리게 하는 쫘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에 인기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두쫘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재료 수급이 어려워져 가격이 오르고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오픈런까지 생겼다. 여기에 인당 개수 제한까지 생기기도 해 두쫘쿠 먹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헌혈의 집은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 현시점 가장 각광받는 디저트인 두쫘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헌혈로 이끄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70년대부터 헌혈 독려를 위해 기념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과거 영화관람권 같은 증정품도 있었지만 단가 문제로 지급이 중단됐고 대체 상품을 찾던 중 SNS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디저트인 두쫘쿠를 선택했다. 특히 혈액 수급이 어려운 겨울철과 방학 기간 등에 행사를 진행해 참여율을 더 높였다. 이 시기는 독감 등의 질병과 한파,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개인 헌혈자도 줄고, 방학 기간에는 단체 헌혈도 부족해지며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헌혈이라는 본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의미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쫘쿠는 지난해부터 인기 기념품인 영화관람권 지급이 중단되면서 시들었던 젊은 층의 관심을 다시 되살리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혈액 보유량이 올 초부터 하루 평균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인 '관심 단계'로 떨어져 긴장 상태였으나 "두쫘쿠 등 각종 행사 이후 5일분 이상인 '적정 단계'로 빠르게 회복됐다"고 전했다.



▲ 출처 : 뉴스1

'헌혈'과 '두쫘쿠', 이들은 어떻게 뭉쳤나

헌혈의 집 고당도 디저트 제공, 괜찮을까?

헌혈 참여도를 높인 다양한 사은품들



'두쫘쿠'를 헌혈의 집에서 제공하자 민원이 제기됐다. "건강을 증진하는 기관에서 비만, 혈당 상승, 총지질 발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고당도 디저트를 나눠준다"란 이유였다. 하지만 두쫘쿠 이전에도 초콜릿,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헌혈 기념품으로 고열량 간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혈의 종류는 '전혈 헌혈'과 '혈소판 헌혈' 두 종류가 있다. '전혈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방식으로, 헌혈 과정에서 320~400mL의 혈액이 체외로 나온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부족해져 현기증, 메스꺼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소판 헌혈'은 장비를 통해 필요한 성분만 분리해,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전혈보다 적은 250mL가 체외로 나오지만, 전혈에 비해 시간이 길어 피로도가 높고,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한 성분으로 인해 입술 저림과 오한이 나타난다.

이런 부작용은 간식과 음료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고열량 간식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된다. 헌혈 후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 내는 조절 작용이 시작되면서 열량 소모가 일어나는데, 이때 섭취하는 고열량 간식은 몸을 정상화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고열량·고당도 디저트를 섭취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지양해야 한다. 두쫘쿠 한 개는 300~500칼로리, 당류 14~16g에 달하는 고열량·고당도 디저트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과체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두쫘쿠 외에도 헌혈 참여율을 높인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 특정 대상과 협업하여 소비층에 만족감을 충족하는 '굿즈'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포토카드'와 '게임 굿즈'가 있다. 아이돌과 게임을 소비하는 대상은 주로 젊은 세대라, 헌혈의 집에서 굿즈를 제공해 젊은 세대들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미공개 포토카드를 제공해 총 2,923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비스킷업즈 게임인 '블루아카이브' 콜라보 굿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시행 첫 주에만 1천 명 가까이 헌혈에 동참했다.

엔하이픈 이벤트 기간에는 53%(1,546명), 블루아카이브 이벤트 기간에는 50%(1,194명) 등 참여자 절반이 이상이 Z세대로 집계됐다. 젊은 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아이돌·게임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정보가 확산하고, 헌혈 장기미참여자와 신규 헌혈자의 대거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충북혈액원은 2월 12일과 13일 설 명절 혈액 수급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전 '성심당 보문산메이리 빵'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단발성 헌혈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인 헌혈로 이어져야 한다.

피를 팔던 나라에서 피를 나누는 나라로...

헌혈의 역사가 남긴 '숙제'

혈액난 해결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헌혈의 집 대기실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속에는 피를 팔기 위해 병원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의 혈액 사업 출발점은 한국전쟁 직후 군 수혈부에서 시작된 혈액 확보였다. 1950년대 들어 생계를 위해 피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혈액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 가까웠다.

그 풍경을 바꿔기 시작한 건 1970년 '혈액관리법'이 제정되고,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혈액 사업을 전담하면서부터다. 법은 유상 매혈을 금지하고, 무상 헌혈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를 개인의 소득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공공재로 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또 변화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헌혈을 "현대 보건 의료의 필수 요소"라고 규정한다. WH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수혈을 통해 생명을 구한다. 혈액은 아직 완벽한 대체제가 없는 자원이다. 유통기한이 짧아 오래 쌓아둘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적정 혈액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제시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자발적 헌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헌혈 수는 적지 않다.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국내 헌혈 실적은 약 260만 건 정도 된다. 혈액관리본부가 공개한 '오늘의 헌혈 통계'를 보면, 2026년 1월 25일까지 누적 헌혈자는 17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20대가 차지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동시에 우려를 낳기도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헌혈자 가운데 10·20대 비율은 70%가 넘는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한 세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그 구조의 최전선에 있는 공간이 바로 헌혈의 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15개 혈액원을 중심으로 도심, 대학, 역세권에 상설 헌혈 공간을 헌혈의 집을 운영한다. 우리대학 근처에도 단암센터, 수유센터가 존재한다. 이 두 곳 모두 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면 갈 수 있다.

헌혈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혈압과 체온을 재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채혈된 혈액은 다시 B형 간염·C형간염, HIV 등 감염병 선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환자에게 수혈된다. 헌혈의 집은 피를 뽑는 곳이자, 이 혈액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보내는 전초 기지다.

UN과 WHO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건, 이 시스템의 원천이 자발적 무상 헌혈자라는 점이다. 금전적 보상이나 희귀 굿즈가 아니라, 이름 모를 타인을 돕겠다는 마음이 헌혈의 가장 안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쌓여 국가 혈액 시스템의 토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헌혈은 타인을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 루틴이 되는 셈이다.



두쫘쿠 포스터가 붙어 있던 헌혈의 집 풍경을 떠올려 본다. 포스터를 사진으로 남기고, 상자를 들고 나가는 손엔 살색의 밴드가 붙어 있다. 유행 디저트가 붙은 이벤트 현수막은 사람들을 헌혈의 집 앞으로 이끌었다. 이 앞을 지난 후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채혈실에 누워 있는 동안, 손에 들

린 건 두쫘쿠가 아닌 자신의 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혈액은 생명을 살리는 자원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실에서 찍어 낼 수 있는 백신이나 약과 달리, 수혈에 쓰이는 혈액은 누군가의 팔에서 흘러나온다. 두쫘쿠의 유무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내일의 응급실을 버티게 한다. 대학가 근처 헌혈의 집은 생각보다 가깝다. 캠퍼스에서 몇 블록만 걸어가면 헌혈의 집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공강 시간, 버스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저녁 시간까지 그 짧은 시간에 팔을 걷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세대다. 지금 한국 혈액 수급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가 이벤트에 상관 없이 헌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혈액 보유량 그래프도 상향곡선을 그릴 것이다. 두쫘쿠 열풍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 다. 인기 디저트는 바뀌고, 또 다른 이벤트 포스터가 헌혈의 집 앞에 붙을 것이다. 그때도 헌혈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혈액을 기다리는 병원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혈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춘 발걸음이 안쪽으로 향할지, 그대로 가던 길을 갈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몫으로 남아 있다.

오늘의 책

흥백 슬프기를, 마음껏 기쁘기를 - 호수의 일 - 이현



▲ 출처 : 교보문고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 나는 몹시 안전했다." 소설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한 문장. 그 문장 한 가운데에 열일곱 살 호정이가 서 있다. 호정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 어쩌면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기에, 끝내 기말 낚시 사냥감인지 모른다.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기대하거나 기대지 않는 아이. 호정은 그대야만 누구도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얼어붙었다. 그 단단한 마음 아래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하루가 흐른다. 친구들과 웃다

가도 문득 친구와 내가 비교되고, 나만 고장 난 나침반을 쥔 듯 불안하다. 걸음으로는 아무 일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렁이는 마음. 그런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견디던 호정의 하루에 은기가 들어온다. 처음에 은기는 "그냥 전학생"이었다. 늘 웃고,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지만 누구와도 깊어지지 않는 아이. 요즘 시대에 풀터 폰을 쓰고, 카카오톡도 페이스북도 하지 않는 아이. 호정의 말대로라면, "일다가도 모르겠는데"였다. 그랬던 은기가 호정의 마음에 스며든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은기와 호정이 마주치며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진다. 어느새 둘은 함께 등하굣길을 걷고, 호정의 헤드폰 너머로 흐르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이가 된다. 호정은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하고 고요한, 햇살을 가득 받아 따뜻하고 환한 호수"에 잠긴 기분을 느낀다. 얼어 있던 마음에 봄이 깃드는 순간이다. "햇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교문 밖 은행나무가 눈부시게 푸르른" 날들. 그러나 두 사람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기의 깊은 트라우마가 학교에서 드러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도망을 택한다. 설명도, 작별도 없이 사라진 은기의 자리엔 호정의 분노와 혼란만이 남는다. 불완전하게 끝난 사랑 앞에서 호정은 방

황한다. "은기라는 애는 없었던 때로,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 몹시 안전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사랑을 몰랐던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사건 이후, 호정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돌보기 시작한다. 은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가늠해 본다. "슬픔은 다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다했다"고 말하는 호정에게서 아픔을 부정하지 않는 성숙함이 보인다. 소설 「호수의 일」은 동화처럼 영원한 사랑이 아닌, 미숙한 사랑과 현실적인 이별의 과정을 비춘다. 또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은기와, 상처를 통과하며 조금씩 크는 호정을 통해 말한다. '성장'은 사랑의 완성에서가 아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 된다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기에, 앞으로도 호정의 호수는 작은 돌멩이에도 쉽게 파문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호정은 안다. 아픔이 곧 무너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모두 통과 하며, 우리 마음속 호수는 깊어진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전시

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 -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별후의 명작'은 훌륭하여 그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작품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별후의 명작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림에도 굳이 변하고 사라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 써야 할 운명을 시인하는 작품, 차라리 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은 작품, 자신의 분해를 공연히 상연하는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를 소개한다. 전시는 삭는 미술의 인상을 그린 '서막', 다양한 방식의 삭이는 작품을 보여주는

'되여가는 시간', 전시마당의 '막간', 그리고 인간과 다양한 존재들의 '함께 만드는 풍경'으로 이뤄져 있다. 전시는 단계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며 인간과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불멸이 아닌 분해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장 화제가 된 전시인 아사다 라자의 〈흡수〉는 페기물과 재료를 섞어 만든 퇴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작품이다. 신발 건너 느껴지는 흙을 통해 분해된 생명으로 만들어진 새 생명의 토대를 느낄 수 있다. 생명 공동체의 터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점점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자연이라는 공동체의 일부임을 일깨운다. 다양한 작품들 속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는 에드가 칼렐의 〈고대 지식 형태의 메아리〉였다. 작품은 넓은 전시 공간 곳곳에 놓인 바위와 그 위의 과일들이 마야 칼치켈 부족의 전통에서 비롯된다. 돌은 산의 몸이 자 조상이 머무는 자리고, 과일과 채소는 자연이 주는 선물과 풍요를 상징한다.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 건 과일과 채소뿐 만이 아니다. 다양한 식물이 발효되며 풍기는 냄새 또한 작품의 일부다. 바위 사이를

걸으면서 과일과 채소가 후속되고 발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땅과 조상이 준 선물에 감사하는 선주민의 지혜는 에드가 칼렐의 작품을 통해 메아리처럼 전시 공간에 퍼져 있다. 이 작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보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023년,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은 에드가 칼렐의 작품 보호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작품이 판매나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테이트 미술관은 예술 작품에 입혀지던 자본주의를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작품의 보호자로서 작품의 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다. '삭다'라는 우리말에는 '썩은 것처럼 되다', '생기를 잃다'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전시가 말하고자 하는 '작품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다. 삭는 미술은 다양한 존재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 자신을 삭히기로 한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잘 보존하는 법보다 잘 분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6. 01. 30. (금) ~ 2026. 05. 03. (일)
· 전시장소 :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관람시간 : 월, 화, 목, 금, 일 10:00 ~ 18:00 / 수, 토 10:00 ~ 21:00
· 관람비용 : 2,000원 (만 24세 미만 및 대학생 무료)

오늘의 장소

우리대학 근처에서 만나는 서울의 밤 - 북악팔각정



우리대학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북악스카이웨이를 오르다 보면, 웅장한 정자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이자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북악팔각정이다. 1968년 군사적 목적으로 개통됐던 도로는 시간이 흘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의 주요 공간으로는 △2층 전망대 △느린 우체통 △망원경 △전통 놀이기구 체험 공간 등이 있다. 카페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산책 후 허기를 달래기에 적절하다. 기자는 흐린 날 오후에 이곳을 방문해 주변을 돌아봤다. 사방이 탁 트여 있어 한쪽에는 남산타워와 고층 빌딩 숲이 보였다. 반대편에는 북한산의 험준한 바위 능선이 보여 신선한 장관을 연출했다. 비록 날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산 정상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낮에서 밤으로 넘어갈 때, 팔각정의 조명이 켜진 순간이었다. 어두운 하늘에 홀로 빛이 나는 팔각정을 보니 오후에 보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사진기를 들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다. 팔각정 본연의 전통적인 선이 사진에 고풍스러운 멋을 더한다. 전망대 곳곳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먼 도심의 풍경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추천

한다. 다만 대중교통만으로는 방문이 쉽지 않아, 접근성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더라도 정류장에서 팔각정까지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한다. 애당초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이기엔 주차나 택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자가용 이용 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방문객이 많은 점은 팔히 알고 가야 한다. 익숙한 서울의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도시를 조망하고 싶은 사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학우들이 있다면 이번 주말 북악팔각정을 찾아가 보길 권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오늘의 영화

다시 한번 환상적인 동물들의 세계로 - 주토피아 2 (2025)



▲ 출처 : KMDb

2025년 11월 26일 개봉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는 1편의 세계적 인기를 이어받아 미국 애니메이션 영

화의 새로운 흥행을 이끈다. 주토피아 최초의 토끼 경찰 '주디'와 그녀의 파트너인 여우 '닉'은 1편에서 주토피아의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양 시장 '던벨베드'의 음모를 저지했다. 〈주토피아 2〉는 이러한 1편의 결말로부터 일주일 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디와 닉은 경찰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며 지내다 어느 날 주토피아에 밀입국한 뱀이 있다는 단서를 수집한다. 둘은 뱀을 추적하다 링슬리 저택의 연회장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링슬리 가문의 발명 일지를 훔쳐 달아나려던 뱀을 마주한다. 그러나 뱀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톱에 물려 기절하고 주디와 닉은 뱀을 도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이에 둘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뱀을 추적한다. 이후 추격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바로 연구 일지의 원주인이 바로 발명 일지를 훔친 뱀 게리 더 스네이크의 증조할머니였다는 진실이다. 과거 이 정보를 입수한 링슬리 가문이 기후 정책의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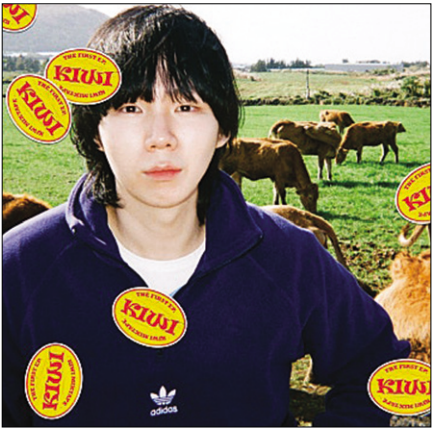
청한 가치를 알아차리고 특허를 빼앗은 것이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디와 닉은 게리를 도와 특허증의 원본을 되찾고 링슬리 가문의 범죄를 밝혀 정의를 실현한다. 줄거리 면에서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받은 〈주토피아 2〉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달성했다. 바로 △겨울왕국 2 △인사이드 아웃 2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등 경쟁한 애니메이션들을 제치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주토피아 2〉의 활약은 중국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장르 사상 일일 최대 관객 기록을 경신했고 단일 흥행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주말 주디와 닉의 모험에 합류해 주토피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음악

알록달록 과일이 가진 저마다의 음은

싱어송라이터 아이(11)의 독특한 앨범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키위, 메들러(서양 모과), 체리로 이뤄진 세 개의 믹스테이프는 각기 다른 맛처럼 저마다의 음을 들려준다. 과일 믹스테이프 앨범을 들으며 키위의 상큼함과 모과의 은은함, 체리의 씹스름한 맛을 즐겨보길 바란다.



▲ 출처 : 바이브



▲ 출처 : 바이브



▲ 출처 : 바이브

♫ 〈Grace〉 - 아이
"괜찮아 감추지 마
년 울고 있잖아
우린 같아
언젠간 다 빛을 닦아
나 같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

♫ 〈Don't Wanna Fall〉 - 아이
"I don't wanna fall
Darling, love me like before
영원하자면 우리 약속도
어리석은 나만의 꿈이었을까"

♫ 〈희념(希念)〉 - 아이
"떠난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세월 지나 끝내 날 잊는대도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댈 잊지 못한 내가 있으니"

믹스테이프 시리즈 중 첫 발매된 앨범 'KIWI MIXTAPE'의 수록곡인 Grace는 가수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다 탄생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곡을 작성했다고 한다. 삶은 만남과 상상의 연속이지만 반짝 빛난 그 잠깐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평생을 버틸 힘이 된다면 꽤 보람찼지도 모른다.

'Medlar Mixtape' 앨범의 세 번째 수록곡이다. 앨범 소개에 따르면 서양 모과는 오래전 유럽에서 비하의 단어로 쓰이기도 했다.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겉모습과 다르게 그 꽃말은 '유일한 사랑'이다. 앨범에 가수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이에게 들려주고픈 음악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어울리는 제목이 있을까?

이 곡은 'Cherry Mixtape' 앨범의 첫 곡이다. 쌀쌀했던 겨울에서 따스해지는 봄으로 넘어가는 멜랑콜리한 이 시기에 듣기 좋은 노래들이 담겨 있는 이 앨범은 이전 앨범 노래들과는 다르게 가사를 영어 없이 모두 한글로만 작성했다고 한다. 가사를 곱씹으며 우리말이 지닌 아름다움을 느껴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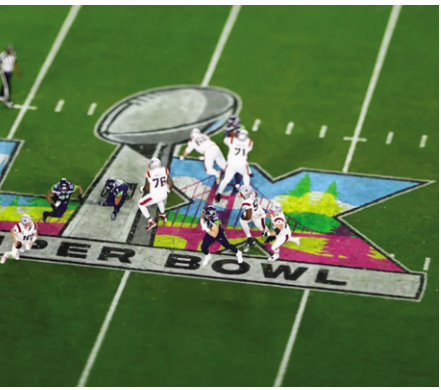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슈퍼볼 토막 상식과 시애틀 시호크스의 11년 만의 설욕전

지난 2월 8일 캘리포니아 샌타클레리타에 위치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제60회 슈퍼볼이 개최됐다. 슈퍼볼은 미국프로풋볼(NFL)의 결승전으로 내셔널풋볼콘퍼런스(NFC)와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의 우승자들이 맞붙으며 매년 2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된다. 미국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인 슈퍼볼은 지상 최대의 쇼라고 불리는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매년 진행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처음 개최할 당시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지 않았지만 이후 점차 명성을 얻기 시작하며 현재의 위상을 이룩했다. 또 슈퍼볼이 열리는 날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식량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날이다. 슈퍼볼에 상영되는 광고는 비싸기로 유명하며, 슈퍼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1억 명 이상의 평균 시청자 수를 달성한 것이 주된 이유다. 그 결과 미국프로풋볼 사무국은 광고주들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빌미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광고주들은 보장된 홍보를 위해 받아들인다. 이번엔 진행된 제60회 슈퍼볼은 시애틀 시호크스(이하 시애틀)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이하 뉴잉글랜드)가 11년 만에 다시 맞붙은 재대결이었다. 두 팀이 맞붙었던 2015년 제49회 슈퍼볼 당시에는 뉴잉글랜드가 24-28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작부터 시애틀의 우위가 점쳐졌다. 주요 외신이 시애틀의 우승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시애틀의 수비력이 뉴잉글랜드보다 뛰어나고 분석했다. 시애틀은 현재 수비 전략의 천재라고 불리는 마이크 맥도널드(이하 맥도널드) 감독이 이끌고 있다. 맥도널드 감독은 자신의 고유한 전략을 바탕으로 시애틀의 수비를 철옹성으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 현재 시애틀은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다. 반면 뉴잉글랜드는 과거 뉴잉글랜드의 선수였던 마이크 브레이블(이하 브레이블) 감독이 지휘 중이었다. 물론 시애틀보다 수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레이블 감독의 전략과 후방 수비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준 대참고: 연합뉴스.



▲ 출처 : NFL

또 이번 슈퍼볼은 양 팀의 쿼터백 간의 대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애틀의 쿼터백 샘 다널드(이하 샘)는 실패한 유망 주 추첨을 받았지만 25시즌 시애틀에서 자신의 부활을 알렸다. 샘은 정규시즌 믿을 수 없는 활약으로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다. 더불어 팀원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샘은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반면 뉴잉글랜드는 2년 차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이하 드레이크)를 앞세웠다. 드레이크는 뉴잉글랜드의 전설 톰 브래디이

후 적절한 후계자를 모색하던 뉴잉글랜드의 해답이다. 드레이크는 큰 키를 활용해 신체적인 이점을 살리면서도 집착한 경기 운영으로 팀의 정규시즌 우승을 도왔다. 물론 샘보다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팀 내 베테랑들의 활약이 있다면 좋은 승부가 가능하다고 예상됐다참고: 연합뉴스. 제60회 슈퍼볼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시애틀이 뉴잉글랜드를 29-13으로 꺾고 설욕전에 성공했다. 초반부터 뉴잉글랜드를 압도하던 시애틀은 뉴잉글랜드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고 승부를 굳혔다. 이로써 시애틀은 통산 2번째 우승을 달성해 슈퍼볼 우승 트로피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영예를 누렸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